**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누가복음 19장 11-28절>

11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12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3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4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15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16 그 첫째가 나아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나이다

17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8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만들었나이다

19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20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나이다

21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22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23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24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므나를 빼앗아 열 므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25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므나가 있나이다

26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 그리고 내가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어떠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은 다 모르지만, 이 해외에서 가족 건사하며, 맡은 책임 감당하며 사시는 게, 쉽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부푼 꿈을 안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계시지요? 그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의 생각과 다른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혹은, 여기서 이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닥쳐보니 과연 이런 게 행복일까, 내가 이 삶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 의구심을 품게 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저 역시 선교사의 소명을 붙잡고, 그 속에 참 행복이 있을 거라 확신하고 이곳으로 왔는데요, 정말 그렇게 행복할 때도 많지만, 때로는 힘들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제 속에 있는 연약하고 죄된 모습과 마주할 때마다, 이런 내가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적도 여러번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얼마나 작은 것일까, 그럼에도 이런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새삼 깨닫게 되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요. 분명 이전과는 다르게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우리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도 좀 더 수월하게 받아들이게 되지요. 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상당 부분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고통과 눈물이 다 사라진다는 생각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통과 눈물을 일정 부분 안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묻고 싶을 겁니다. 그럼 예수는 왜 믿는가? 예, 그게 참 미스테리지요. 기독교 복음은 당장에 완전히 새로운 삶의 환경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새로운 행복에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예수 믿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로 계속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천국으로 뽕 들어간다면 모든 것이 간단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단순한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세상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고통과 눈물을 안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일지라도, 그 속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삶의 의미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오랫 동안 고대해 왔던 메시야 왕국이 세워지고, 우리 삶의 고통과 눈물은 모두 끝나겠구나!”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을 이 비유를 통해 바로잡아 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가기 전에 그 종 열 명을 불러서 은화를 각각 한 므나씩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것으로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귀인은 예수님을 의미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세상 끝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리고 온 인류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종이 되기를 자처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은화 한 므나씩을 나눠주십니다. 달란트 비유의 달란트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다양한 재능들을 의미한다면, 여기서 모든 종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은화 한 므나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은혜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은혜이자, 이 땅에서 보이지 않게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 받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 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땅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땅 백성들이 그 귀인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자를 뒤로 보내어 귀인에게 통보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 다시 돌아올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곤 하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내 자유가 침해되고 내 인생에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 내 멋대로 살 것이다, 예수는 결코 다시 오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15절을 보십시오. 귀인은 결국 돌아옵니다. 그 땅의 반역자들은 그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고, 또 그러리라 믿으며 살았겠지만, 귀인은 결국 왕위를 받아가지고 위풍당당하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의 종들을 불러 결산을 합니다. 이것은 좀 의외입니다. 저 같으면 먼저 그 반역에 가담한 백성들을 잡아들여서 그 죄를 물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귀인의 최고의 관심은 그 반역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종들이었습니다. 즉 주인이 가장 먼저 알고 싶었던 것은 그 종들이 받은 은화로 각각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인이 없는 동안 사람들이 반역을 꾸미는 그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은 바보같이 여겨지는 그 처량한 현실 속에서도, 주인이 맡겨준 사명을 그들이 꿋꿋하게 감당했기를, 주인은 무엇보다 보고싶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이 나아와 보고합니다. “주인님, 당신이 주신 한 므나로 열심히 일하여 열 므나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를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겠노라.” 두 번째 종이 와서 보고합니다. “주인님, 저도 당신이 주신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그를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다시 오신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맞게 될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분명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진정 듣기 원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이 말 한 마디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C. S. 루이스는 그의 글 <영광의 무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곳이다. 거기서 우리가 받을 영광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영광의 빛이 비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어떤 이들에겐 가장 슬프고 비참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의 문턱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된다면, 그보다 비참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가 받은 계시를 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계1:7)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 누구도 그의 위엄과 권세를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의 처분만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5세기의 교부 성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구주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곳은 초라한 장소였다. 하지만 재림은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초라한 곳으로 오셨을 때에는 가족 이외에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공개적으로 오실 때에는 선인과 악인 모두가 그를 알아볼 것이다. 초라한 곳으로 오셨을 때에는 심판을 당하여야 했지만 공개적으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어서 본문 20절을 보니까, 또 한 종이 주인 앞에 나아와 말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주인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느끼고, 바로 이어 그는 변명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당신이 무서워서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가져가려 하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하시는 가혹하고 엄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종의 말 중에서 과연 얼마만큼이 진실에 해당할까요? 그가 지금, 돌아온 주인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무서움은 그 이전까지 그가 자기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 그는 자기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두려워했다면 앞의 두 종들처럼 주인에게 받은 것으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를 생각하며 충성스럽게 살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두려워 한 것은 이 세상에서 실패자나 왕따가 되는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 주인이 결국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에게는 주인이 안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도, 그렇다고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믿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주인과 반역자들 사이에서 교묘히 양다리를 걸치게 됩니다. 받은 은화를 수건에 싸서 숨겨놓습니다. 주인에 대해서는 받은 것을 까먹었다는 추궁만 겨우 면할 정도로 해놓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세상의 소리는 주인에 대한 그의 인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주인에 대한 불평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가져가려 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하는 가혹하고 엄한 사람이야.”

그 종의 말을 듣고 주인이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네가 나를 정말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왜 그런 엄한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내 돈을 은행에라도 맡겼다면 그 이자라도 내게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조차도 하지 않았다.” 주인은 지금 이 종의 속내를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그 종이 돈을 수건에 싸둔 것은 그의 말처럼 주인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그로 하여금 주인을 오해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그의 마음은 주인에 대한 불평과 불신으로 가득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르고 신뢰할 만한 지식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유지됩니다. 우리 주님은 두지 않은 것을 가져가려 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하는 가혹한 수탈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귀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 안에 넣어주신 분입니다. 겨자씨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놀랍게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분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앞의 두 종이 내놓은 결과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윽고 주인이 곁에 섰는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악한 종에게서 그 은화 한 므나를 빼앗아 열 므나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그에게는 이미 열 므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말합니다. “잘 들어라.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있는 자’와 ‘없는 자’란 무엇이 있고 없다는 뜻입니까? 예, 주인에게서 받은 그 한 므나로 장사하여 ‘남긴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내 믿음의 삶을 통해 세상에 더 넘치게 했느냐 그러지 못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차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능력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도리의 문제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통해, 더 많은 은혜의 결실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 언급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지나온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지 못한 사람은 다시 오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할 때, 여기서 행함은 자기 의에 초점을 맞춘 행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함은 분명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과 서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맞춘 행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증하는 행함이며, 우리가 그분께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서 더욱 넘치게 하는 행함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들은 주인이 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형벌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과 저 천국에서의 삶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시작합니다. 아직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에 있을 주님 앞에서의 결산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이에게 그 시간은 다가올 기쁨과 영광의 순간을 예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 그 시간은 수치와 형벌의 조건을 그 삶에 쌓아놓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이 없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복음의 은화 한 므나씩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가치와 잠재력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에 대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 그 영광의 순간을 향한 믿음의 여정에 자기의 삶을 헌신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 사실 하나를 늘 기억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는 그 받은 은혜의 복음이 이루어 놓은 결과에 대해 주님 앞에서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종들과의 결산을 마친 주인은 마침내 그가 왕 됨을 원치 않았던 반란자들을 끌어다가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날이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을 미혹하고 괴롭혔던 원수들은 그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해 고난받았던 이들의 눈에서는 마침내 눈물이 씻겨질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에 대해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다 느껴진다면, 다음의 사실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심판의 때를 한번 더 연기하신 하나님은 또다시 이미 2천년이 넘도록 그 심판의 때를 연기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충성스런 종들을 통해 그 잃어버린 양들이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무자비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무자비란 표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면서도,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 이들을 위해 들려주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본문 28절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그 예루살렘이 최종적인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우리는 잘 압니다. 오히려 그곳은 고난의 자리였고, 그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자리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그곳으로 나아가는 길은 은혜를 온 세상에 더욱 넘치게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이었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 앞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정금같이 제련되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눈물을 안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받은 은혜를 세상에 더욱 넘치게 하며,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오실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주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